오카쿠라 텐신의 아시아통합론과 불교

— 『동양의 이상』과 『일본의 각성』을 중심으로 —*

최 유 경**

目 次

들어가는 말
Ⅰ. 명치초기의 아시아에 대한 논쟁과 텐신의 『일본의 자각속의 아시아
Ⅱ. 명치시대와 불교
Ⅲ. 텐신과 불교미술, 그리고 인도
Ⅳ. 아시아미술의 보고로서의 일본
Ⅴ. 아시아통합의 주체로서의 일본
나오면서

들어가는 말

세계대전이 종결 된지 반세기가 지난 1990년대, 아시아에는 동아시아라는 권역을 설정하고, 이 지역의 새로운 세계 질서와 문화를 모색하려는 동아시아담론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러한 동아시아담론은 소련 붕괴와 냉전 체제의 해체와 더불어 전 세계가 EU와 NAFTA 등 하나의 단일한 시장, 단일 공동체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는 세계적 큰 흐름에 대한 위기감의 발로에서 비롯된 것으로 1990년대 당시 말레이시아 총리였던 마하티르 모하마드가 동아시아공동체 설립 문제를 처음으로 주창한 이래 아시아각국들은 통합으로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1].

---

* 이 논문은 2005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된 (KRF-2005-000-A00054) 것이다.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종교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

1) 일본은 2003년 12월 동경에서 일본 ASEAN수노회담을 개최하고 일본과 ASEAN의 멤버쉽을 위한 도쿄선언을 냈다. 2004년 5월 1일, 2003년 9월에는 중국에서 동아시아싱크탕크 네트웍 (NEAT) 창설회의가 열리고 사무국을 중국사회과학원에 설치한 것에 자극받은 일본은 나카소네 전 수상을 회장으로 한 관민일체의 일본 동아시아공동평의회를 만들었다. 이러한 아시아통합을 향한 일본의 움직임은 더욱 본

하지만, 근대의 불행했던 동아시아의 역사로 아시아통합의 주축이 되어야 할 한국, 중국, 일본 사이에는 아직도 상호 불신과 경계, 혐오감이 강하게 남아있고, 거기에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아시아에서의 세력권확보와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일으킨 대동아전쟁(大東亞戰爭) 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한 현실에서 아시아통합에 대한 논쟁이 매우 우려스럽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일본이 스스로를 아시아국가의 일원으로 인식하고 아시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 일까. 다케우치에 의하면 명치유신이후이지만 실질적으로 아시아를 실체로 인식한 것은 '대동아공영권'을 주창하던 태평양전쟁기라고 지적한다[2]. 즉, 이 지역은 중화사상, 즉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질서 체제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었는데, 서구의 출현과 더불어 아시아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일본에서는 후쿠자와 유키치의 탈아론을 비롯하여, 사이고 타카모리를 중심으로 제기된 정한론(征韓論) 등 명치유신초기부터 아시아 및 아시아 진출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는데, 이러한 논의가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은 1880년대 후반, 즉, 청일전쟁전후이다.

1895년, 청일전쟁의 승리로 아시아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한 일본은 청일, 러일전쟁을 통해 동아시아를 일본 제국주의가 주도하는 세력권으로 재편성해 나갔다. 이러한 일본의 야욕은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을 주창하던 태평양전쟁으로 노골화되는데, 대동아공영권의 슬로건으로 사용된 것이 "아시아는 하나 (Asia is one)"이다. 이 말은 명치시대의 미술사가, 오카쿠라 텐신(岡倉天心 본명은 覺三, 1862 1913)이 1903년에 출간한 『동양의 이상』의 서두에서 사용한 말이다. 텐신의 "아시아는 하나"라는 말이 그의 사후, 태평양전쟁을 사상적으로 지탱하는 말로 전면에 사용되면서 텐신은 일본제국주의의 찬미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었는데, 그의 아시아통합에 대한 발언이 러일전쟁으로 일본이 일약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 시기에 나온 것이라 더욱 그러했다. 그런데, 근래 제기되는 동아시아공동체, 아시아통합론에 대한 활발한 논의는 텐신을 다시 역사의 수면으로 불러오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격화되어 일본수상, 고이즈미는 2003년 1월 싱가포르에서의 일본과 아세안협력을 기초로 한 "함께 걸으며 함께 나아가는 커뮤니티"구축제안에 이어 2006년 1월 20일 제162통상국회 개회에서 「동아시아공동체의 구축」을 선언하며 "다양성을 끌어안으면서 경제적 번영을 공유하는 열린 『동아시아공동체』의 구축에 대한 전망을 내놓았다.

2) 다케우치 요시미(竹內好), 『다케우치 요시미 평론선- 일본과 아시아』, 소명출판, 2004년, pp. 207-208.

종래, 사상계에서 다루어지는 텐신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정치적인 색채를 띠고 있지만 미술계에서 텐신을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 각별하다. 다카시나 슈지는 일본 근대미술을 행정적으로 정비한 일본미술의 부흥가이며 열린 국제인으로 텐신을 재평가하는데[3], 이는 그의 주 활동 무대가 미술계로 아시아는 하나라는 주장도 일본 미술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텐신에게 미술과 아시아의 동일성, 그리고 아시아통합은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는 것일까. 텐신의 아시아 발견은 인도의 종교운동가의 영향도 컸지만, 그 보다도 인도와 중국의 미술사적의 탐방이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여 주었다. 텐신은 아시아 미술유적을 통해 공통된 아시아 정신, 즉, 종교적 심성을 발견하였고, 이는 종교가 동양의 이상 그 자체였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여기서 동양의 종교란 아시아전체를 아우르는 불교를 지칭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텐신의 아시아론에서 아시아를 통합하는 도구로 삼았던 불교와 미술에 대한 논의는 정작 텐신연구에서 도외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텐신의 아시아주의를 그의 대표적인 4개의 서적을 중심으로 재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텐신의 아시아주의에 흐르는 동양정신이란 무엇이며, 이것이 어떻게 이데올로기화하여 나갔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텐신의 아시아의 동일성과 아시아의 문화의 주체로서의 일본이라는 주장이 이후 대동아공영권의 전신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하여도 명확히 하고자 한다.

Ⅰ. 명치초기의 아시아에 대한 논쟁과 텐신의 『일본의 자각(THE AWAKING OF JAPAN)』속의 아시아

서구 열강들의 식민지쟁탈경쟁이 극동아시아까지 확대되어 가는 19세기 후반, 인도와 중국은 물론 조선, 일본에까지 서세동점의 물결이 확대되어 갔다. 이런 과정에서 아시아 국가들은 식민지, 혹은 반식민지로 전락하였고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일본은 부국강병과 식산흥업을 목표로 서구의 기술문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정책을 채택하였다. 명치시대의 방향성은 서양을 절대 가치로 삼았던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탈아론(脫亞論)"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는 「탈아론(脫亞論)」에서 일본은 지리적으로는 아시아에 있지만 국민의 정신은 아시아에서 이미

3) 高階秀爾, 「開かれた伝統主義者 岡倉天心」『日本近代の美意識』, 青土社, 1993年, 46頁.

벗어나 있고,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고 야만의 상태에 있는 중국, 한국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한다면 서구에서 삼국을 동일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은 야만의 아시아에서 벗어나 서구의 문명을 수용해야 함을 역설하였다[4]. 명치 초기는 후쿠자와의 탈아론이 상징하는 것처럼 서구의 기술문명의 수용으로 인한 일본의 서구화정책이 채택되었고, 일본의 정치, 사회, 문화, 예술 등 사회제반에 걸친 서구화가 국가주도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서구화정책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기 시작한 1890년대, 서구중심주의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민족주의 의식이 고양되면서 아시아에서의 영토확장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다. 이는 명치정부의 권력에서 밀려난 세력을 중심으로 제기된 정한론(征韓論)으로 구체화된다. 정한론이 처음 제기된 것은 에도말의 사토 노부히로(佐藤信淵),요시다쇼인(吉田松陰) 등으로까지 거슬러갈 수 있지만 정치적 이슈가 된 것은 1870년대 중반경이다[5]. 하지만, 정한론이 서구화를 우선시하는 명치정부의 정책 속에서 부정되면서 일본의 대륙 팽창에 대한 주장은 아시아국가들이 힘을 합하여 서구의 침략을 막자는 아시아연대론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하였다[6]. 정한론을 아시아연대로 주장을 변화시키며 아시아와의 연대를 주장했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타루이 토오키치이다. 1878년에서 1881년에 걸쳐 정한론의 근거를 찾기 위해 조선인근의 무인도를 찾아다닌 경력을 지닌 타루이[7]는 1893년에 출간한 『대동합방론』에서 백색인종의 아시아침략을 막기 위해 황색인종의 아시아국가들이 연대해야 하는데 우선 조선과 일본이 대등하게 합방하고 이에 중국 등 다른 아시아국가들이 연합하여 동양의 부흥과 평화를 이룩하자는 주장을 펼쳤다[8].

이처럼 서구화를 최대의 가치로 삼았던 명치사회는 청일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서구화의 물결에 숨을 죽이고 있던 일본의 전통문학, 미술, 사상에 대한 연구가 재기되었다. 이와 더불어 아시아 통합에 논의도 더욱 다양화되면서 일본의 전통문화, 나아가 아시아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이어졌다. 일본전통문화에 대한 재고찰의 경향은 러일전쟁 후 더욱 본격화되었는데, 이는 더 이상 서구를 모

---

4) 福澤諭吉「脫亞論」『時事新報』1885年 3月 16日.
5) 한상일, 『아시아연대와 일본제국주의 대륙낭인과 대륙팽창』,도서출판 오름, 2002년, p. 28.
6) 위의 책, p. 14.
7) 森本藤吉, 『大東合邦論』, 발행처불명, 1893年, 6頁.
8) 위의 책, 27頁, 148頁. 토오키치는 조선과 일본이 연방제를 채택하여 대등하게 병합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지만, 합병의 주체는 일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대등한 합병이란 아시아침략을 위한 허울뿐인 명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방하지 않아도 세계를 상대로 싸울 수 있다는 일본민족주의의 발로와 일본이 아시아의 중심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의식의 표출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동향은 명치초기의 국수주의자이 전통문화를 고수하고 부흥시키고자 했던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러일전쟁 전후로 부상한 이 새로운 국수주의자들은 일본문화에서 결여되어 있는 부분에 서양문화의 일부분을 취사선택하여 일본의 전통적인 문화를 더욱 세련되게 발전시켜 세계에 일본문화의 우월성을 드높이자는데 있다. 그러기에 이들은 일본을 소개하는 서적을 영어로 집필되어 서양에서 출판하였다. 텐신의 『차에 관한 책』, 『동양의 이상』, 『일본의 각성』을 비롯하여 우치무라 칸죠는 『대표적 일본인』, 니토베 이나조『무사도』등은 모두 영어로 집필되어 폭넓게 유럽에게 읽혀진 서적들이다.

이들에게 주목할 만한 것은 일본이 아시아의 일원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 아시아와의 동질성을 부각시켰다는 점이다. 그 중 한 사람이 오카쿠라 텐신이다. 그는 일본이 아시아의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던 1903년, 러일전쟁이 아직 표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텐신은 『동양의 이상』(The Ideals of the East)』(1903)을 런던에서 출간되었다. 그 후 『일본의 각성(The Awakening of Japan)』(1904), 『차에 관한 책(The Book of Tea)』(1906)을 출간하였고, 1902년 집필을 시작했지만 그의 사후에 출간된 『동양의 각성(The Awakening of the East)』(1902년 집필, 미완성), 이렇게 4권을 집필하였는데, 『동양의 자각』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본이 아닌 서구권에서 출간되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들 서적에서 텐신은 근대 서양 사상의 폐해를 지적하고 동양정신과 예술의 가치를 칭송하는 동시에 아시아국가들의 자각과 단결을 호소하였다.

텐신은 4권의 서적에서 동양, 아시아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9], 서구에 의해 발명된 아시아라는 개념을 아시아국가들이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근대이후이다. 이렇게 서구에 의해 만들어진 아시아를 인도여행을 통해 발견한 텐신은 아시아인들의 자각과 통합을 역설하는데, 이는 텐신이 인도에서 서구의 침략 앞에 무릎을 굻어버린 처참한 인도의 모습만이 아니라 인도의 종교와 예술이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

9) 텐신은 동양과 아시아를 나름대로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스에키는 고대이후의 전통문화를 중심으로 언급할 때는 동양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고 근대를 중심으로 볼 때에는 서구의 식민지주의에 대항하는 의미로 아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末木文美士『明治思想家論 近代日本の思想 · 再考 I』, トランスビュー, 2004年).

이 여행의 경험은 『동양의 이상』(The Ideals of the East)』으로 이어지는데 이 서적은 다음과 같은 글로 시작된다.

> 아시아는 하나이다. 오직 두 개의 강력한 문명, 즉, 공자의 공동주의 (共同主義) 를 갖은 중국인과 베다의 개인주의를 갖는 인도 사람을 히말라야 산맥이 갈라놓고 있는 것도 서로가 각각의 특색을 강조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다. 눈 덮인 장벽조차도 모든 아시아 민족에 있어서의 공통의 자산 유산이라고도 할 수 있는 궁극적인 것, 보편적인 것에 대한 폭넓은 애정을 한 순간이라도 방해할 수 없다. 이러한 애정이야 말로 아시아 민족으로 하여금 세계의 위대한 종교의 일체를 낳게 한 것[10]

이라며 아시아가 비록 히말라야 산맥에 가로막혀 중국과 인도문명권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는 두 문명권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며, 보편적인 것에 대한 사랑과 종교적 근간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언급한다. 그러면서 "아랍의 기사도, 페르시아의 시, 중국의 윤리, 그리고 인도의 사상, 이 모든 것이 단일의 아시아적인 평화를 말하고 있고 그곳에서 저절로 공통의 생활이 자라나, 각각의 장소에서 서로 다른 독특한 꽃을 피우지만 확실한 구분선 같은 것을 그을 필요"[11]가 없다며 외견상으로는 "아랍의 기사도, 페르시아의 시, 중국의 윤리, 인도의 사상" 처럼 각각의 지역에서 서로 다른 문화를 꽃피우고 있지만 그것들을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을 만큼 아시아에는 서양과는 다른 문화적 동질성이 존재한다고 텐신은 주장한다.

하지만, 아시아의 나라들도 서구 못지않게 다른 언어와 문화를 지닌 문화권으로 이루어져있다. 텐신도 인정하고 있듯이 "동양의 각각의 제국들은 수 백 만도 넘는 신앙과 방언이 서로 자유롭게 병존하면서 발전할 정도로 광활하다. ……중국은 52개의 방언과 헤아릴 수조차 없을 만큼의 민족들의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고, 그 국토는 4백만 마일의 넓이를 갖고 있는 유럽 전체 국토보다"[12] 크다. "수 백 만도

---

10) The Ideals of the East, London, John Muray, 1903, 岡倉天心『東洋の理想』『岡倉天心全集』第1卷(13頁에 수록), 1995年, 平凡社. 텐신은 이 원고에 THE IDEAS OF THE EAST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ART OF JAPAN 라는 제목을 붙였다고 한다(위의 책, 475頁). 즉, 텐신에게 일본미술은 동양의 이상과 서로 상관관계를 가질 만큼 의미있게 다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1) 위의 책, 14頁.

12) 『東洋の覺醒』『岡倉天心全集』第1卷(158頁)에 수록.

넘는 신앙과 방언", "헤아릴 수조차 없을 만큼의 민족"이 혼재하고 있는 아시아를 하나로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한 설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하지만, 텐신은 아시아가 이렇게 광활한 국토와 다양한 민족과 언어를 지닌 집단과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지역이지만 "오늘날, 동양 사람과 한 순간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아시아의 어딘가의 나라에 한 번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지울 수 없는 혈연관계"[13]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 지적한다. 또한, "동양생활 저변에 흐르는 통일성은 우리들의 희박한 교섭에도 불구하고 잘못되지 않은 통찰을 우리에게 준다. 상당히 이해력이 있는 서양인이라도 친밀함과 지식을 얻을 수많은 쉬운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의 수수께끼를 이해 못하고 있다. 하지만 동양인은 즉시 동양인과 서로 통한다"[14]며 같은 동양인이기 때문에 교류가 적어도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서구인에 비해 월등히 뛰어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그의 주장은 매우 주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아시아의 단일성의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아시아는 하나"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주장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않는데, 텐신에게 아시아의 하나라는 주장의 의미와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텐신은 아시아의 동일성을 미술과 미술의 정신적 기반이 되는 종교, 그 중에서도 불교와 불교예술에서 찾아내고 있다. 텐신은 "중국과 극동 아시아에 들어간 불교는 베다와 공자의 이상을 하나로 엮어, 아시아의 통일성을 가져왔다. 모든 불교국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교류가 거침없이" [15]아시아 국가들로 흘러들어가 아시아의 통일된 문화를 이루었고, "불교를 정신적인 유교를 도덕적 안내로서 선택하였다"[16] 고 지적한다. 텐신은 아시아가 인도의 힌두교, 불교, 중국의 도교와 유교 등 다양한 종교적 기반을 가지고 있어 서로 다른 문화권처럼 보이지만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은 불교와 유교, 도교를 공존시키며 하나의 통일된 정신적 기반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텐신은 『동양의 이상』이나 『차의 책』 등에서 동양사상과 예술을 지탱하는 종교로서 불교 외에도 도교, 유교를 거론하고 있지만 불교를 아시아전체를 아우르며 일본종교와 미술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보았다. 텐신은 불교가 아시아의 정신적 기반임을 주장하고 있지만 명치초기 불교에 관심을 보인 지식인들 거

---

13) 위의 책, 148頁.
14) 위의 책, 146頁.
15) The Awakening of Japan, New York Century Co. 1904 『日本の覺悟』『岡倉天心全集』1卷(179頁)에 수록.
16) 위의 책, 243頁.

의 드물었다. 이는 명치정부의 신불분리와 신도부흥, 그리고 서구화 정책의 영향으로 불교는 부정해야 할 악습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교가 다시 지식인들의 주목을 받게 되고 아시아주의와 관련을 맺는 배경에 대하여 살펴보자.

Ⅱ. 명치시대와 불교

고대사회의 정치형태인 제정일치의 고대 율령제로 돌아가자는 왕정복고령을 발포하며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국가의 통치이념으로 삼은 명치정부는 천황의 국가통치의 근거를 고서기와 일본서기 신화에서 찾았다. 이를 위해 명치정부는 진무(神武)천황의 창업의 정당성을 대규모적인 의례에 통해서 구체화했는데, 이는 천황의 정치지배의 정당성을 종교적 차원에서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었다[17]. 신지적(神祇的) 천황제 국가의 확립을 지향한 한 신정부의 종교정책은 최고의 제사자로서 천황을 정점으로 한 종교적 통일과 신지적 국가이념에 의한 교화를 통한 국가적 통합이었다[18]. 신도를 국교로 하는 정책을 실시한 명치신정부의 이데올로기적 기반이 히라타파의 복고신도에 있었기 때문에 이세 신궁(伊勢神宮)을 중심으로 한 전신사의 재편성이 이루어지고, 종교적 통합 정책은 급물살을 타면서[19], 신을 숭배하고 조상을 받들어 모시는 경신숭조(敬神崇祖)를 주축으로 하는 국가의 교의가 완성되었다. 신도는 종교의 범위를 넘어서 국가제의로서 불교, 기독교 등 공인된 모든 종교에 군림하는 국가신도체제가 성립된 것이다.

이처럼 명치유신이 신도내셔널리즘이라는 복고신도의 강한 영향 하에 수행되면서 신도국교화 정책과 신불분리정책(神仏分離政策)이 추진되었고, 신지관(神祇官)의 부활, 신불분리, 폐불훼석(廢仏棄釋)운동이 전개되었다. 그에 따라 가미를 존경하고 불교를 폐하는 경신폐불(敬神廢仏), 즉, 불교파괴활동에 박차가 가해졌다. 이는 신사에서 불교색을 제거하려는 것으로 이 같은 불교배척운동으로 인해 불교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이것은 오랫동안 신불습합의 보편화되어 있던 일본종교계에서는 파격적인 조치였다. 이렇게 신도와도 불리된 불교는 구시대의 유물로 타파해야할 구습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되면서 사면초과의 위기에

17) 上重良『國家神道』, 前揭書, 79頁.
18) 子安宣邦『國家と祭祀』, 青土社, 2004年, 123頁.
19) 村上重良『國家神道』, 岩波親書, 1978年, 78-79頁.

직면하게 되었다. 물론, 불교를 폐하자는 폐불론이 명치시대에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니다. 에도말기의 국학과 미토학(水戶學)의 '경신폐불'의 사상에 의한 폐불훼석 운동을 이어받은 것으로[20] 텐포개혁(天保改革) 당시 사원정리와 파괴가 행해졌지만, 결국은 텐포개혁의 실패로 불교탄압은 원점으로 되돌아갔고, 명치유신 후 폐불론이 또 다시 수면위로 등장한 것이다. 이 같은 명치정부의 신불분리정책은 신도를 불교의 위에 두어 불교를 통합하려는 것이었으나, 결국 모리 아리노리, 니시 아마네 등과 같은 계몽주의자들이 신교자유론을 펼치면서 교부성정책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21].

명치정부의 불교탄압은 1871년경부터 진정기미를 보이기 시작하자 불교계는 이 위기적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 스스로 불교개혁에 착수하게 되었다. 불교부흥운동이 1870년대 후반 경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1879년, 도쿄대학에서의 하라탄잔(原坦山, 1891-1892) 의 불교 강의는 불교의 학술적 연구의 시작을 의미하였다[22]. 한편, 불교개혁운동에 앞장선 대표적인 인물로 이오우에 엔료(井上円了, 1858- 1919)를 들 수 있다. 그는 불교의 부진을 개탄하며 1887년 『불교활론(仏教活論)』을 출간하면서 불교를 철학적으로 연구하는 길을 열었다. 하지만, 1889년 발포된 제국헌법이 신교(信教)의 자유를 인정하자, 에도시대에 금기시 되어왔던 기독교는 서구화를 향한 계몽운동과 자유민권운동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세력화해 나갔지만 여전히 불교회복운동은 침체되어 쇠퇴기로에 서있었다. 명치정부가 신교의 자유를 허락한 것은 서구화를 국가의 방침으로 내세우면서 언제까지 유럽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독교를 금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사람 중에 하나가 이노우에엔료와 더불어 선구자적 역할을 한 이노우에 데츠지로(井上哲次郎,1856-1944)이다. 그는 불교의 이데올로기적 측면을 확립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이노우에 엔료와 테츠지로와 같은 철학자들이 불교를 하나의 철학으로 연구하는 사상적 기반을 제공하였던 것도 이 시대의 하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원래 독일에서 서양철학을 연구한 이노우에 테츠지로는 호법애국 (護法愛國) 으로서의 불교를 주창하며 종교에 대한 국가의 우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기독교인으로 신앙에 반한다는 이유로 교육칙어의 경례를 거부한 우치무라 칸조(内村鑑三)와 도덕과 종교의 충돌논쟁을 벌이면서 우

20) 鈴木貞美『日本の文化ナショナリズム』, 平凡社, 2005年, 65頁.
21) 末木文美士『明治思想家論 近代日本の思想 · 再考Ⅰ』, 前揭書, 23頁, 28頁.
22) 위의 책, 86

치무라의 행위에 강한 비판을 하는 동시에 외래종교로서의 기독교도 부정한다. 그렇다고 기독교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지만 테츠지로에게 기독교는 극복되어야 할 대상이었던 것이다[23]. 물론 불교도 인도에서 전래된 외래종교이지만, 일본에 전래되어 일본에 뿌리를 내린지 이미 천년이 넘어 불교는 외래종교가 아닌 일본종교라고 봐야 하며 더 나아가 불교만이 일본이 자랑할 만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친다[24].

이노우에는 교육칙어를 받들어 국가도덕주의의 이데올로기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교육칙어의 공정해설서와 더불어 칙어연의 (勅語衍義) 를 다음 해 간행하여 칙어를 국민교화의 기둥으로 삼자는 국민적 캠페인을 벌였다[25]. 교육칙어 (教育勅語) 는 국가와 천황에 대한 충성심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교화의 방침을 목적으로 1890년에 발포된 것으로 신성불가침의 천황을 정점으로 둔 강력한 국가주의체제를 국민교육으로 보완하고자 한 것이다. 당시, 일본은 외형적으로는 근대화가 일단락 지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서구열강과의 불평등조약의 개정, 자유민권운동의 고조 등 여전히 대내외적으로 불완전한 상태였던 명치정부의 정치체제[26]를 불교가 명치국가이데올로기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호국의 길을 선택하며 새로운 길을 모색하였던 것이다. 명치중기의 불교부흥운동은 불교계가 명치정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옹호, 지지하는 호국종교로서의 길을 선택함으로 불교가 외래종교가 아닌 일본의 정신의 근간을 이룬다는 것을 재인식시킴으로 불교부흥을 꾀하였다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신도이즘만으로는 동양사상을 아우를 수 없다는 한계에 부딪친 것이 명치중기 불교부흥의 하나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즉, 신도를 국교로 하는 작업은 천황제국가체제정비를 위해 신도의 순수성을 강조하고 신국으로서의 일본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진 특단의 조치였지만 이론적 기반이 취약한 신도는 여전히 불교를 필요로 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텐신이 불교에 주목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미술사가로서 일본미술의 부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던 텐신이 불교를 비롯한 아시아의 종교

---

23) 末木文美士『明治思想家論 近代日本の思想 · 再考 I』, 前揭書, 67-68頁.

24) 위의 책, 52-53頁. 이노우에는 불교는 현실적인 감각에서 너무 동떨어져있다고 비판하며 원래 불교는 세속과 탈속 그 중간에 존재하는 것이라며 세속의 이익이 되는 불교로 거듭날 것을 주장하였는데 스에키는 이러한 이노우에의 입장이 불교의 세속화의 길을 열었다고 지적하였다(위의 책, 58-60頁).

25) 위의 책, 62頁.

26) 鈴木貞美『日本の文化ナショナリズム』,前揭書, 69-70頁.

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과 아시아를 아우를 수 있는 공통의 정신적 기반으로 불교의 의미를 고찰하여 보기로 하자.

Ⅲ. 텐신과 불교미술, 그리고 인도

텐신이 미술과의 인연은 매우 우연한 계기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는 도교제국대학의 졸업논문으로 준비해두었던 논문을 상실하게 되면서 미술에 관한 논문을 급하게 재집필한 것이 텐신이 미술과 연을 맺게 된 계기라고 전해지고 있다[27]. 이 논문을 계기로 텐신은 문부성에서 미술관련 일을 담당하게 되는데, 당시 도교제국대학 미학과 교수로 재임하던 페놀로사의 통역으로 일본의 고미술과 사찰신사의 조사, 보존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이 일은 텐신이 일본미술, 즉, 불교와 관련된 고미술을 접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1886년의 페노로사와 텐신 등에 의한 교토와 오사카 등의 오래된 신사와 사찰의 조사는 정부의 문화재조사와 보호정책에 의거한 것이다. 종래, 종교시설로 인식되던 사찰, 사원, 신사가 문화재로 인식되면서, 1887년의 관국폐사보존금제도(官國幣社保存金制度)의 제정, 1888년에 궁내성의 임시전국보물취조국(臨時全國宝物取調局)의 설치, 1896년의 고사사보존회(古社寺保存會)의 설치, 1897년의 고사사보존법(古社寺保存法) 등이 발포되었다[28].

텐신이 일본미술행정을 담당하고 있었던 1880년대의 일본미술계는 서양미술을 위한 일본의 최초의 국립학교로 설립된 코우부(工部)미술학교가 폐교되고, 일본의 전통미술의 부흥의 기운이 높아져 갔던 시기였다. 이러한 당시의 경향을 우라자키(浦崎永錫)는 「전통존중의 국수적 보수화의 운동」과 「서구화심취의 반성에 의한 국수적진보파의 운동」[29]으로 파악하였다. 하나는 사노죠민(佐野常民)을 대표로 하는 구파 류이치회(龍池會)로 이 단체는 「일본고유미술을 진흥시키고 만국에 그 명성을 영구하게 하는 것」[30], 즉, 일본고유미술을 진흥시키고 세계 각국에 일본미술

---

27) 平內陸彦, 『岡倉天心の思想探求 迷走するアジア主義』, 勁草書房, 1998年, 19頁.

28) 高木博志, 「1880年代, 大和における文化財保護」 『近代天皇制の文化史的研究』, 校倉書房, 1997年, 294－300頁. 다카기는 이러한 문화재보호행정은 국내외적으로 「쿠기를 비롯한 관료에 의한 천황제의 문화적 통합으로 의식되어진 것이라고 지적한다.

29) 浦崎永錫, 『日本近代美術發達史 明治篇』, 東京美術, 1974年, 88－89頁.

30) 「改正龍池會規則」 『大日本美術新報』 第1号, 1883年 11月.

의 명성을 드높이는 것이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였다. 다른 하나는 1884년에 텐신과 페노로사가 중심이 된 신파 감화회(鑑畵會)였다. 감화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일본미술 부흥사업에 참여하게 된 텐신은 명치시대에 걸 맞는 일본미술을 창출하기 위해 1886년 페노로사와 유럽시찰을 다녀온다. 서양미술을 배제하고 일본전통미술 교육을 위한 도쿄미술학교(東京美術學校)가 설립된 것은 그로부터 3년 뒤인 1889년의 일이었다[31]. 1889년 도쿄미술학교 개교 후 얼마 되지 않아 하마오 아라타에 이어 텐신은 도쿄미술학교 교장직을 이어받게 되면서 명실공이 일본미술계의 수장이 된다. 하지만, 서구식 교육을 우선시 하는 사이온지 긴모치의 문부성장관 취임과 개인적인 스캔들로 도쿄미술학교를 1898년에 사임한 텐신은 그 해 일본미술원을 설립하여 새로운 일본미술발전을 모색하게 된다.

그의 아시아와의 인연은 이 시기부터 구체화되어지게 된다. 도쿄미술학교 일본학과 교수진을 중심으로 일본미술원을 설립하였지만 극심한 재정난을 겪으면서 텐신은 1901년 인도로 약 1년 간 여행을 떠나게 된다. 텐신은 인도의 문화유적의 견학과 종교운동가들과 교류를 통해 아시아와 서양, 그리고 인도와 일본의 종교와 예술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다. 텐신은 종교와 예술을 한 나라의 정신을 이해하는 문화의 척도로 보았는데 이는 "예술은 우리들 국민문화의 가장 높고 가장 고귀한 것의 표현인데, 여기에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살펴보고 검토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유교철학의 다양한 면만이 아니라 불교정신이 시대에 따라 펼쳐 보이는 여러 가지 이상"[32]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한다. 즉, 종교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고매한 정신을 시각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정신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미술인 것이다. 1889년, 미술잡지인 『국화(國華)』의 창간축사에서도 "미술은 국가의 정화(精華)이다. 국민의 존경, 흠모, 애중(愛重), 기망(企望)하는 곳의 의상관념(意象觀念), 혼화결집(渾化結集)하여 형상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기골품격(氣骨品格)을 보고 문화의 정도를 판단하는 것"[33]이라며 미술을 국가의 정신을 표현하는 꽃으로 한 국가의 문화의 깊이를 판단하는 척도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1) 도쿄미술학교의 교과목은 일본화를 위한 과목만이 아니라 사생, 인체해부, 기하학, 투시법, 원근법 등 서양미술의 기초과목도 포함시켰다(『東京芸術大學百年史 東京美術學校篇』 第1卷, 芸術研究振興財団 東京芸術大學百年史編集委員會, 1997年, 155－157頁).

32) 『東洋の理想』『岡倉天心全集』 第1卷(17頁)에 수록.

33) 岡倉天心, 「『國華』發刊ノ辭」, 『國華』 創刊号, 1889年 10月 28日, 『岡倉天心全集』(42頁) 第3号에 수록

이 같은 인식은 『동양의 이상』이 일본미술사로 집필되었다는 것과 이 책의 원제목이 '일본미술에 나타난 동양의 이상'이었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 책의 서문에서 텐신은 "아시아는 하나"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지만 인도여행 후 추가된 첫 장과 마지막 장 이외에는 모두 일본에서 이미 집필된 일본미술사로 구성되어 있다[34]. 일본미술에 관심을 갖고 있던 서양여성들에게 일본미술사를 강의했던 노트를 좀 더 보완한 것으로 텐신은 그 원고를 일본미술사 서적으로 출간하려 준비하였던 것이다[35]. 그 와중에 텐신의 인도여행이 이루어지면서 텐신은 일본미술의 근원이 바로 아시아문화의 출발점인 인도에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고 일본미술 서적에 앞과 뒤에 아시아에 대한 기술이 첨가된 것이다.

『동양의 이상』을 출간한 그 해 다시 인도를 찾은 텐신은 일본의 종교와 예술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인도와 중국과 일본의 미술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풍속 일용품 등에서도 일본의 불교 미술과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이 나라의 풍속이라는 것은 일본 불화에서도 그 그림자를 떨어뜨리고 있다. 불화는 꼭이나 이상적이 것이 아닌데, 그 근거는 인도풍속을 근거로 하여 열대에서 군청색의 하늘, 무성한 사림, 다양하여 다 이름을 말할 수 없는 화초, 야생 공작이 날아가는 장소하고 앵무새가 하늘을 나는 장소, 나한적 인물들의 방황하는 장소 등은 너무나 재미있다. 이 나라에서는 불교의 이름은 단절되어버렸지만 실질적으로 인도에 있으면 일본의 밀교와 취향이 같다[36].

텐신은 인도가 불교의 발생지이면서도 불교전통이 단절되어버렸지만, 인도의 종교적 전통은 일본의 불교미술 속에 그대로 살아 있음을 발견한다. 특히 밀교의 탱화에 묘사된 이국적인 동식물, 인물 속에서 인도의 모습을 발견한다. 이렇게 일본 예술이 중국과 인도와 유사성을 보이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텐신은 "중국과 인도의 문명은 조선에 흘러 들어가 인접한 일본의 기슭에 몰려들어 왔다. 당왕

---

34) 이 서적의 구성은 (1) 이상의 영역 (2) 일본의 원시 미술, (3) 유교-중국 북부, (4) 노자교와 도교-중국 남부, (5) 불교와 인도 미술, (6) 아스카 시대, (7) 나라시대, (8) 헤이안 시대, (9) 후지와라 시대, (10) 가마쿠라 시대, (11) 아시카가 시대, (12) 도요토미 시대와 도쿠가와시대 초기, (13) 도쿠가와시대 후기, (14)명치시대, (15) 전망으로 구성되어 있다.

35) 平内陸彦, 『岡倉天心の思想探求 迷走するアジア主義』, 勁草書房, 1998年, 12頁.

36) 「印度美術談」 『日本』, 1902年, 『岡倉天心全集』 3卷, 前揭書, 262-264頁. 이 글은 『日本』이라는 신문에 「岡倉覺三氏の印度談」라는 제목으로 기제된 기사이다.

조는 범신론과 조화주의를 일본들에게 알게 하고, 한편 송왕조 때에는 새로운 낭만주의와 개인주의가 일본의 해변을 씻겨 주었다. 소승불교의 이원론으로부터 달마의 초일원론에 이르기 까지 인도는 일본의 종교, 철학에 풍부한 유산을 주었다"[37]며 일본 문명의 근간에 중국과 인도가 있음을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6세기 불교가 도래하기 전에 일본의 원시예술에 처음으로 밀려든 대륙적 영향은 중국의 한나라와 6조의 것"[38]이었으며 "당대의 이상을 반영한 야마토의 시와 무악이 오늘날까지 영감과 기쁨의 원천이 된다는 점에서 송대의 빛나는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는 깊이 있는 선종과 노가쿠도 마찬"[39]가지라고 지적한다. 이렇게 텐신은 중국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당송문화가 일본예술의 원천을 이루었음을 언급하였다. 하지만, 그의 지적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과거 화려하게 꽃피웠던 당송시대의 '빛나는 문화유산'을 지닌 중국, 그리고 인도가 서구의 위협을 받으면서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도 지적하였다.

1902년 인도에 체류 중에 집필한 『동양의 각성』에서 텐신은

> 아시아의 형제자매들이여!
> 엄청난 고통이 우리들의 아버지와 조부의 땅을 뒤덮고 있다. 동양은 유약함과 동의어가 되었다. 토착의 백성이라는 것은 노예의 다른 이름이 되었다. 우리들이 온순함에 대한 찬사는 반어법으로 서양인에서 예의 올바름이란 겁을 내기 때문인 것이다. 상업의 이름으로 우리들은 호전의 용사를 환영하고 있다. 문명의 이름으로 제국주의자를 포옹하고 있다. 기독교의 이름으로 무자비함의 앞에 꿇어 엎드렸다[40].

영국에게 짓밟히는 인도를 눈으로 확인한 텐신은 서양제국주의들에게 받은 수많은 고통이 우리 조상들의 땅을 뒤덮고 아시아의 백성은 노예와 다름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토로한다. 그럼에도 동양은 그들을 문명이란 이름으로 환영하고 있으며 그들의 무자비함에 무릎을 꿇었다고 무조건적인 서구화정책을 비판한다. 텐신은 아시아가 위대한 종교를 공유하고 있지만 현실의 아시아는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당시 아시아 문화의 발상지인 인도, 중국이 처해있는 상황에

---

37) 『日本の覺悟』『岡倉天心全集』第1卷(243頁)에 수록.
38) 『東洋の理想』『岡倉天心全集』第1卷(122頁)에 수록.
39) 위의 책, 16頁.
40) 『東洋の覺醒』『岡倉天心全集』第1卷(135頁)에 수록.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의심할 여지도 없이 아시아의 대지에 대한 서양의 침략이 우리들의 국가적 독립을 위협하는데 이르렀다는 불길한 위기감이 든다. ……우리들이 가장 신성한 성지로 기억하는 인도가 그 정치적 무관심에서 조직의 결여와 이해충돌을 하는 인도끼리의 사소한 질투심이 독립을 상실하게 하는 모습을 보았다.……중국의 아편전쟁, 그리고 흑선이 바다 건너 가져온 위험한 마력 앞에 동양의 나라들이 계속해서 굴복하는 실상은 그 옛날 타타르인의 무적함대의 무시무시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41).

인도는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과 갈등으로 국력을 상실하고, 중국은 아편전쟁으로 피폐해져 가는 등 서양의 침략으로 아시아는 위협받고 있다고 개탄하였다. 텐신의 서양 문명에 대해 강한 비판을 가하며 "유럽의 영광은 아시아의 굴욕"42) 이라고 까지 언급하였다. 이렇게 서양에 침략당하여, 아시아가 지금은 형편없는 모습으로 변해버렸지만 본래 아시아의 현자(賢子)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서구의 세력이 우리를 압박하는 것에 성공한 것은 결코 우리 문명의 열등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기생충의 침해는 유기체의 슬픈 숙명이라고 해도 좋다. 생명의 중요한 기관을 파괴하는 악성 암은 그 독성을 과시해도, 그것이 파고 든 조직의 약함을 증명하는 것"43)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아시아가 현자의 모습을 회복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는 아시아인들이 자신들이 처해있는 현실을 자각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친다.

> 아시아의 형제자매들이여!
> 우리들은 오랫동안 이상 속에서 방황해 왔다. 다시 한번 현실에 눈을 뜨도록 하자. 무감동의 강을 건너 왔다. 다시 한 번 현실의 과혹한 강가에 서자. 우리들은 수정과 같은 투명한 억제를 자랑삼아 서로 고립되어 왔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서로의 비참의 바다 속에서 융합해야 할 것이다. 서양의 역겨운 양심은 종종 황와(黃渦)의 환영을 불러 일으켰다. 그렇다면 동양이 고요한 응시를 백와(白渦)로 향해야 되지 않을까. 나는 제군에게 폭력이 아닌 남자다움을 호소하는 것이다. 공격이 아니라, 자각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44)

---

41) 『東洋の理想』『岡倉天心全集』第1卷(107頁)에 수록.
42) 『東洋の覺醒』『岡倉天心全集』第1卷(136頁)에 수록.
43) 위의 책, 157頁.

텐신은 아시아 국가들이 이상과 현실 속에서의 방황을 끝내고, 현실을 직시하고 서로 융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고 서구를 무력으로 공격하자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자각하자고 호소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왜냐하면 '진정한 문명은 폭력이나 유혈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45]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텐신은 단순한 자각만을 외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는 아시아 국가들은 구체적, 현실적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러면서 "애국심의 조직적인 고양과 전쟁에 대한 계획적인 준비만 있을 뿐이다. ……범아시아동맹은 그 자체가 엄청난 힘이겠지만 그 전에 각각의 민족이 자신들의 힘을 느끼지 않으면 안된다. 외국의 원조는 아무리 우호적이고 동정적인 것이라 하여도 그것에 얼마라도 의존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약함이며 우리들이 착수하고 성취하려는 대의에도 맞지 않는다. 우리들의 위대한 선조는 숭고한 희생이 빛나는 용맹함을 드러냈다"[46]며 애국심의 고양과 전쟁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와 외국에 침략에 맞서 싸우기 위해 각각의 국가들이 힘을 길러야 한다는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전에 아시아 국가들은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하는데,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들의 이웃나라에 관한 인상은 대부분 유럽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실제로 왜곡의 의도가 없다하여도 스스로 유럽의 해석에 의해 윤색되어 있다"[47]고 지적하며 진정한 아시아의 모습에 대한 고찰이 편견없이 아시아인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기 위해 텐신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인도와 중국의 종교와 예술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주창하는데, 그는 아시아문화에 대한 고찰을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들 국가들의 문화적 기반과 일본과의 공통점을 찾아내 황폐해진 아시아의 맥의 중심이 일본에 있음을 증명하려 하였다.

하지만, 텐신의 이러한 서구문화의 비판과 동양문화의 우월성에 대한 언급은 이 서적이 영어로 집필되어 일본인들이 접하게 된 것은 쇼화 초기였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48], 이들 서적들이 일본인들에게 자신감을 주기위한 것이 아니라 서양인들에게 동양의 문화, 나아가 일본의 문화가 결코 서양의 것과 비교하여 열등하지

---

44) 위의 책, 136-137頁.
45) 위의 책, 151頁.
46) 위의 책, 162-163頁
47) 위의 책, 145頁
48) 『차의 책』이 1929년, 『동양의 이상』과 『일본의 각성』이 1935년에서 1936년, 『동양의 각성』은 1938년에 발견되어 1938년에 출간되었다(末木文美士, 『明治思想家論 近代日本の思想 · 再考 I』, 前揭書, 273頁).

않다는 것과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정당성을 서구인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즉, 텐신이 서구를 향해 발산하고 있는 메시지는 일본은 섬나라라는 지리적 여건으로 단 한 번도 외부의 침략을 받지 않아 고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동양문화를 보존 발전시킨 국가이고 거기에 아시아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서구의 위협으로 자국의 안전을 시켜가며 명치유신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일본의 위상을 서구에 알리는 것이었다. 텐신의 아시아의 문화의 보고(寶庫)로서의 일본의 이미지와 아시아의 통일성에 관한 주장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고찰하여 보기로 하자.

Ⅳ. 아시아미술의 보고로서의 일본

텐신의 일본미술에 대한 우월의식은 『동양의 이상』의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일본이 "태양신기원과 인도신화의 전통에 양육되어 시가를 사랑하고 여성을 존경해 맞이하는 민족[49]임을 상기시키며 일본은 "고대 중국, 인도예술과 습관을 그 발생지인 장소에서 상실해버린 아주 오랜 동안에서 보존해 왔"[50]음을 언급하며 구체적으로 "아시이아 문화의 역사적 부를 계통적으로 고이 간직해온 실물을 통해 연구 할 수 있는 장소는, 일본을 빼고는 없을 것이다.……나라의 사원은 당나라 문화의 최고의 융성함을 보여주는 것이고, 일본의 고대에 많이 영향을 준 인도 예술의 대표적 작품도 풍부하고, 그 옛날 눈부신 시대의 종교적 의식과 철학은 말할 필요도 없이, 음악, 발성, 의례, 복장에 이르기 까지 때 묻지 않고 보존해 온 나라의 국민으로서 당연한 상속재산이 되고 있다"[51]며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일본만이 아시아에서 찬란했던 고대 아시아의 종교, 철학, 예술 등을 그대로 간직해온 유일한 나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 결과 "일본의 예술사는 이처럼 그대로 아시아적 이상의 역사가 된다"[52]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본은 단순히 고대 아시아 문화를 단순히 간직하는 것만이 아니고 어떻게 독자적인 예술로 발전시켰는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

49) 『東洋の理想』『岡倉天心全集』 第1卷(18頁)에 수록.
50) 『日本の覺悟』『岡倉天心全集』 1卷(242頁)에 수록.
51) 『東洋の理想』『岡倉天心全集』 第1卷(16頁)에 수록.
52) 위의 책, 16-17頁.

"일본의 원시미술의 본래의 정신도 그대로 사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나라의 중국풍건축의 기와를 아스카양식의 미묘한 곡선에 의해 변용되어진 것은 이 정신에서였다.……쉽게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허락하지 않은 일본 고유의 운명이라 해야 할 지리적 위치도 사실은 중국의 하나의 지방, 또는 인도의 식민지적 지적 역할을 일본에게 제공한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하지만 일본민족의 자부심과 유기적 결합이라고 하는 암반은 아시아문명의 이들 두 개의 대륙으로부터 몰려온 큰 파도에도 불구하고 각 시대를 거쳐 확실히 흔들림이 없었다. ……대륙의 아시아가 일본과 접촉하면 필히 새로운 생명 새로운 영감의 원천이 되는 것은 거꾸로 대륙 아시아의 영광이다"[53].

텐신은 섬나라라는 지리적 여건으로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던 일본은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예술양식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 중국과 인도로부터 끊임없이 유입되는 새로운 예술사조는 "일본민족의 자부심과 유기적 결합"을 이루어 일본의 독특한 예술세계를 만들어냈다고 언급한다. 그러면서 대륙문화가 일본에 유입되면 "새로운 생명 새로운 영감"을 얻어 재탄생하는데 이것이야 말로 "아시아의 영광"이라고까지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것이 가능한 배경에 대하여 "일본의 예술의 혼을 이렇게까지 누그러지게 하는 부드러운 단순함, 낭만적 단순함을 이것이야 말로 중국예술의 단순한 공간성의 경향으로부터도, 또한 인도예술의 과도할 정도로 풍만함의 경향에서도 일본예술을 구별 짓게 하는 것이다. 이 청경함에 대한 본능적 애호는 때로는 장대함을 훼손하게 하기도 하지만 일본의 공예미술에서 대륙작품에서도 아마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정교한 완성을 부여하였다"[54]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텐신은 일본예술이 사물을 "누그러지게 하는 부드러운 단순함, 낭만적 단순함"을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중국과 인도예술과도 차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언급한다. 즉, 일본예술은 중국과 일본의 영향을 받았지만, 단순히 모방하고 간직하는 차원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대륙문화를 소화하여 어느 대륙의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예술공예품을 탄생시켰다는 자부심을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다. 그 결과,

일본은 아시아문명의 박물관이다. 아니 단순히 박물관으로 머물러 있지 않는다. 그것은 일본민족의 특이한 성격은 오래된 것을 상실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기쁘

53) 위의 책, 20頁.
54) 위의 책, 19頁.

게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신도는 불교이전의 선조숭배의 의식을 지금도 지켜 내고 있고, 불교도 자신도 그 자연의 순서에 따라 일본국토를 풍요롭게 해왔다[55].

일본을 "아시아문명의 박물관"이라고 정의한 텐신은 이러한 것이 가능했던 힘은 일본인의 "오래된 것을 상실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데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일본은 오래된 것을 상실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것을 수용할 줄 아는 열린 자세가 일본의 종교를 풍요롭게 하였다고 지적한다. 이렇게 텐신이 일본만이 아시아문화를 과거와 현재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나라라는 것을 강조하는 배경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 배경을 텐신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아시아적 특성을 가장 명료하게 실현하는 작업이야 말로 일본의 위대한 특권이었다. 일본민족이 지닌 인도적, 타타르적인 혈맥 그 자체가 이 두 개의 원천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옛날 전아시아의 의식을 거울처럼 비쳐 보여주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상속재산이었다. 단절된 적이 없는 주권이라는 특권의 은혜, 다른 민족에게 정복 된 적이 없는 민족의 높은 자부심, 거기에 팽창발달을 희생해가며 선조로부터 전래된 사상, 본능을 지키고 키워온 섬나라적인 고립 등이 맞물려 일본을 아시아 사상과 문화가 믿고 맡겨진 진정한 저장고로 존재하게 한 것 같다"[56]

텐신은 일본이 "아시아 사상과 문화가 믿고 맡겨진 진정한 저장고"라고 주장한다. 이는 일본이 동양정신을 대표하는 불교와 힌두교를 계승하고 있어 모든 아시아인 의식을 반영하고 있으며, 거기에 단 한 번도 다른 민족에서 지배된 적도 없는 일본의 단절되지 않은 주권이라는 특권과 그로인한 높은 민족적 자부심, 그리고 조상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사상이 섬나라라는 고립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즉, 일본의 문화와 역사가 서아시아로부터 동아시아에 걸쳐 아시아전역의 문화유산을 심도 있게 수용하고 그것을 배양하면서 성립된 동양문화의 보고(寶庫)라는 것이다. 이 같은 텐신의 주장은 인도, 중국과 같은 아시아의 대국이 서양 열강에 무릎을 꿇어버린 상태에서 아시아 사상을 부활시킬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서양침략을 받지 않았고 고대로부터 있어온 모든 아시아사상이 집약된 동방의 나라 "일본"이 그

---

55) 위의 책, 16頁.
56) 위의 책, 14-15頁.

주도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서구 열강의 동양의 침략을 비판한 텐신의 아시아주의, 혹은 아시아부활론, 아시아통합론은 일본의 주도하에 아시아가 하나로 통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텐신의 아시아 통합은 정치적 통합이 아니라 정신적 종교적 문화적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그의 주장이 정치적 통합론에 힘을 실어주는 이론적 기반이 되어주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Ⅴ. 아시아통합의 주체로서의 일본

텐신은 서구의 침략주의와 달리 찬란했던 아시아의 고대문명과 높은 정신성을 극찬한다. 이러한 고매한 정신문명은 물질문명을 앞세운 서구열강들에게 파괴되어 아시아는 마치 노예의 상태처럼 되어 버렸다고 토로하며 아시아인들의 자각을 성토하지만, 텐신의 이와 같은 주장은 아시아 문명의 부활자로서의 일본의 권리와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는 데에 그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전후 일본의 많은 사상가들은 "아시아는 하나"라는 말이 일본파시즘에 의해 악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중에서 타케우치는 텐신이 "아시아는 하나"라고 했던 것은 오욕으로 가득한 아시아를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겠다는 낭만적 '이상' 속에서 나온 것으로 이를 제국주의에 대한 찬미로 해석하는 것은 본 의도에서 벗어난 것이며 텐신에게 제국주의는 서구적인 것이고 미의 파탄자로서 배척되어야 할 사상이라고 지적하며 이런 점에서 텐신의 사상은 타고르의 사상과 매우 비슷하다고 언급한다[57].

하지만, 『일본의 각성』에서 언급한 텐신의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그리고 조선과 대만에 대한 일본의 지배권에 대한 견해에서 다케우치의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각성』은 러일전쟁 중에 집필된 것으로 텐신의 4개의 서적 중에서 가장 정치색을 강하게 드러낸 서적으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비호하며 일본의 조선 지배를 정당화하는 의식이 명확하게 보이고 있다. 유럽의 강국, 러시아를 상대로 싸우는 신흥 아시아국가, 일본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던 텐신은 이 전쟁의 정당성을 서방국가에서 전하고자

57) 다케우치 요시미(竹內好), 『다케우치 요시미 평론선- 일본과 아시아』, 위의 책, pp. 276-277.

했던 의도를 확실히 드러내고 있다. 만주와 조선을 포함하는 동북아시아지역의 패권을 둘러싼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의 정당성을 피력하기 위해 조선이 일본의 황조신인 아마테라스의 남동생, 스사노의 아들에 의해 설립된 국가로 고대로부터 일본의 식민지였으며 도쿠가와막부에게 조공을 받쳐온 일본의 식민지로서 기술하고 있다[58]. 이 같은 견해는 명치시대의 역사관에 근거한 것으로 식민지로서의 조선을 강조함으로 중국으로부터의 조선해방이라는 청일전쟁의 명분에 힘을 실어 주었다.

텐신의 아시아관의 모순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그리고 일본의 조선, 대만지배를 바라보는 다음과 같은 시각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 조선반도를 어느 적국이 점령한다면 일본에 육군을 보낼 수 있는데, 그것은 조선이 비수와 같이 일본의 심장부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 조선과 만주의 독립은 우리 민족 존속을 위해서 경제적으로도 필요한데, 그것은 끊임없이 늘어나는 인구가 만약 어렵사리 개간 된 두 지방에 정당한 배출구를 찾을 수 없다면, 아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모스크바인이 이 토지에 손을 대고 있지만 그것에 어떠한 저항을 하는 것은 일본뿐이다. 이러한 정세 하에 일본은 일본의 고대의 영토였던 조선이 공법적인 국가 방위를 위한 라인 내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1894년에 중국에 의해 반도의 독립이 위험에 쳐해 졌을 때, 중국과 전쟁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그 때문이다. 1904년, 우리가 러시아와 전쟁을 시작한 것은 마찬가지로 반도의 독립을 위한 것이다 [59]

텐신은 일본의 안위와 일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조선반도의 자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만약 조선과 만주가 다른 나라에 점령된다면 "어렵사리 개간 된 두 지방에 정당한 배출구를 찾을 수 없다면, 아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

---

58) 텐신은 "한반도는 유사 이전부터 아마도 원래 일본의 식민지였다고 생각된다. 조선에 있어서의 고고학적 유적은 일본의 원시적 고분과 정확하게 동일하다.……일본의 가장 오래된 전설은 아마테라스의 남동생, 스사노가 조선에 정주했다고 전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의 초대국왕인 단군은 역사가들에 의하면 그의 아들이었다고 한다.……13세기의 몽고의 침략기도는 중국군의 전위대를 이끈 조선인에 대한 적개심에 불을 붙였다. 그러나 유일한 조치는 도요토미의 원정이었으며 그것은 16세기에 그가 조상 전래의 적이라고 생각한 것과 검을 겨누기 위해 조선에 대군을 이끌고 갔던 것이다.……히데요시의 병사와 함께 즉시 귀환시켜졌다. 이 예외적인 원정의 결과는 히데요시에 이어진 도쿠가와시대를 통해서 조선의 통치자가 장군임명의 때마다 조공하는 나라의 왕으로서 경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절을 파견해 온 것이다"(『日本の覺悟』『岡倉天心全集』第1卷(248-249頁)에 수록.

59) 위의 책, 250-251頁.

라고 피력하고 있다. 이러한 텐신의 언급은 1890년에 시작된 경제공황을 타개하기 위해 해외시장 침략을 꾀하고 있던 당시 일본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라 사려된다. 그러면서 만주와 한국의 배타적인 지배권을 둘러싸고 러시아와 일본이 벌인 러일전쟁에 대해 러시아의 야욕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은 일본뿐이라며 "일본의 고대의 영토였던 조선이 공법적인 국가 방위를 위한 라인 내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다며 청일전쟁도 러일전쟁도 조선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창한다. 나아가 텐신은 러일전쟁의 정당성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 삼국의 일본의 승리의 정당한 과실에 간섭해 온 것은 이때부터이다. 평화의 이름으로 러시아가 독일과 프랑스의 지원을 얻어 일본이 새롭게 획득한 만주의 영토를 방치하도록 강하게 요구해 왔다.……러시아는 대군을 만주에 돌입시키고 전초 부대가 조선에 들어 왔다. 용의 노여움에 접한 일본은 일어섰다. 요동의 바위를 넘어, 황해의 파도를 걷어차며 우리들은 필사의 시라하마전을 치렀다. 일본은 모국을 위해 싸운 것이 아니고 최근의 왕정복고의 이상을 위해서 귀중한 고대 문화의 유산을 위해서 그리고 전아시아의 훌륭한 재생을 볼 수 있는 평화와 조화의 꿈을 위해서 싸웠던 것이다[60].

텐신은 러일전쟁의 발발원인에 대하여 청일전쟁의 대가로 일본이 획득한 중국의 요동반도에 대하여 정당한 전쟁승리의 전리품이었다고 언급하며, 러시아가 프랑스, 독일을 끌어들여 일본의 만주 땅을 포기하도록 강요하고, 조선을 침략한 것에 대항하여 일으킨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은 일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아시아의 훌륭한 재생을 볼 수 있는 평화와 조화의 꿈을 위해서 싸웠던 것"이라고 언급한다. 주지하다시파 대동아공영권은 일본군에 의한 점령과 자원획득을 위한 경제활동을 전제로 하면서 일본의 슬로건은 반제국주의, 대동아 민족의 해방이었고 명분상으로 대동아공영권은 자주독립성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텐신의 앞에서 언급한 주장은 대동아공영권이 지향하고자 했던 내용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텐신의 모습은 청일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 1894년-95년의 중국과의 싸움은 중국이 조선의 사실상 지배자가 되려는 욕망에서 비롯되었는데, 중국의 주장은 조선이 속국이었다는 것이다.……1895년 평

60) 위의 책, 153-154頁.

화조약이 체결되고 그 조약은 중국이 조선의 독립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전쟁의 끝날 때 일본이 점령한 영토와 함께 대만을 양위하는 것이었다. 이 조약에 의해 일본은 전쟁의 목적을 이루었지만 그 조약은 조선의 영토통일을 보장하고 중국으로부터 어떠한 이 이상의 위험으로부터도 보호물이 되는 것이었다. 황해의 지배권을 사실상 손에 넣은 일본은 겨우 안정할 수 있었다[61].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의 지배권을 둘러싸고 벌이며 아시아에서 제국주의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청일전쟁을 텐신은 오랜 중국의 속국이었던 조선을 중국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한 전쟁이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일전쟁으로 맺어진 1895년의 평화조약이란 시모노세키조약(馬關條約)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 조약은 서구열강이 아시아 국가들에게 그리하였듯이 조선에서의 청국의 종주권 파기와 중국의 요동반도, 대만, 팽호열도(澎湖列島)를 차지하였으며, 중국으로부터 2억량(兩)이라는 거액의 배상금을 받아내는 등 불평등조약을 맺으면서 중국에서 엄청난 이익을 얻어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텐신은 시모노세키조약으로 조선의 영토는 중국의 위험으로부터 보장되었다고 지적하면서도 이 전쟁으로 일본은 "황해의 재배권"의 획득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될 수 있었다고도 언급하고 있다. 전쟁 이후에는 본격적인 침략적 분할의 대상이 되어 제국주의 열강의 패권다툼의 먹이가 된 중국의 모습에 대한 언급도 찾아보기 어렵다.

『동양의 이상』에서 텐신은 서구의 물질문명과 대비되는 동양의 우수한 정신세계를 예찬하고 이러한 동양의 예술과 종교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일본미술의 우수성을 주창하였다. 그러나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의 각성』을 출간하여 청일, 러일전쟁이 아시아의 평화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성전이었음을 피력하며 전쟁의 정당성을 알리고자 하였다. 아시아의 신생국, 일본이 유럽의 강국, 러시아를 물리친 이 사건으로 세계는 일본 및 일본문화에 주목하게 되었는데, 텐신은 『차의 책』을 통해 일본이 정신적이며 종교적이고 예술적인 나라인가를 역설한다. 『동양의 이상』에서 "새로운 아시아의 강국으로서의 일본을 기다리는 커다란 문제와 책임에 우리들은 흥분한다. 단순히 자신의 과거의 이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래된 아시아적 통일의 잠자는 생명을 느끼고 이것에 활력을 되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62]"이라고 피력한 텐신이 러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난 다음해에 출간된 『차의 책』에서 "서양인이 일본이 평화의 온화한 기예에 빠져있을 때, 문명국이라

61) 위의 책, 252-253頁.
62) 『東洋の理想』『岡倉天心全集』第1卷(112-113頁)에 수록

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일본이 만주의 전장에서 대학살을 범하기 시작하면서 문명국이라고 부르고 있다.……만약 일본이 문명국으로 되기 위해서는 소름끼치는 전쟁의 영광에 의하지 않으면 된다면, 우리들은 기꺼이 야만인으로 있을 것이다. 우리들의 기예와 이상에 합당한 존경을 받을 때까지 기쁘게 기다리자"[63]라는 주장을 펼친다. 일본이 대학살과 전쟁으로 문명국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면 기꺼이 야만국으로 남을 것이고, 일본의 예술이 서구로부터 존경받을 날을 기다린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텐신의 주장은 『일본의 각성』에서 보여준 청일, 러일전쟁에 대한 입장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으로 전쟁의 승리로 이미 서구와 같은 문명권으로 유입된 일본이 정신적으로도 우수한 문화를 가진 국가라는 것을 다도를 통해 증명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사려된다. 텐신의 『차의 책』 이후 일본에서는 동양정신으로서의 다도, 불교의 연구가 더욱 본격화되고, 아시아의 미의식, 종교의식에 대한 연구는 결국, 오랫동안 서구컴플렉스에 빠져있던 일본인에게 동양문화, 나아가 일본의 정신의 숭고함, 예술의 우수성을 깨닫게 하는 계기를 주었다. 또한, 아시아의 정신성 및 아시아통합, 아시아의 하나라는 텐신의 주장은 서로 맞물리며 쇼화시대의 대동아공영권의 물고를 트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나오면서

"아시아는 하나"라는 유명한 명제를 통해 명치 및 쇼화시대에 그 존재성을 각인시킨 오카쿠라 텐신은 이 말이 대동아공영권의 구현을 상징하는 슬로건으로 사용되면서 이 말은 "유럽의 영광은 아시아의 굴욕"으로서의 아시아, "토착의 백성이라는 것은 노예의 다른 이름"이 되어버린 아시아의 모습을 상징이 것이 되어버렸다. 대동아공영권에서 강조한 아시아의 모습은 구미열강의 식민지지배로부터 동아시아, 동남아시아를 해방하고 일본을 맹주로 하는 공존공영(共存共榮)의 새로운 신국제질서를 구축하는데 있었기 때문이다.

텐신도 서양제국주의의 아시아 침략과 약탈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지만, 이 말이 사용된 『동양의 이상』에서 하나 된 아시아는 동일한 정신문화를 공유한 문화권으로서의 동질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텐신은 비록 중국과 인도로 대변되는 문화권에 불교와 힌두교, 도교와 유교 등 다양한 종교가 존재하고, 그 종교가 다양한 문

63) 『茶の本』『岡倉天心全集』第1巻(267-268頁)에 수록.

화와 예술을 만들어내 서로 이질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보편적 것이 것에 대한 사랑과 종교적 근간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동일성은 "중국과 극동 아시아에 들어간 불교는 베다와 공자의 이상을 하나로 엮어, 아시아의 통일성"을 가져왔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일본의 고대문화도 이러한 대륙의 영향을 받아 나라시대의 "시와 무악", 무로마치시대의 "선종과 노가쿠도"와 같은 일본을 대표하는 예술을 만들어냈음을 지적한다. 하지만, 이같이 높은 정신성을 지닌 문명을 창조하며 아시아문명의 근원지가 된 중국과 인도는 서구의 침략으로 그 찬란했던 고대문명은 상실되어 버렸다고 언급한다. 이에 반해, 섬나라로 오랫동안 외부로부터 고립되고, 외부의 침략을 단 한 번도 받은 일본은 아시아의 모든 문화를 간직하고 보존하고 발전시켜온 나라로 일본을 "아시아문명의 박물관"이며, "아시아 사상과 문화가 믿고 맡겨진 진정한 저장고"라고 주장한다. 이는 일본의 고대문명에 대한 집요한 애정이 "일본이 근대적 강국의 위치에 도달하면서도 여전히 아시아의 혼을 충실하게 보존하는 이유"[64]이며, 아시아의 문명을 부활, 발전시켜 "활력을 되돌리는 것이 일본의 사명"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인식은 결국, "일본"이 아시아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아시아문명을 부흥시켜야 한다는 주장으로 귀결된다. 텐신은 서구의 침략주의를 비판하며 미와 종교를 사랑하는 평화의 아시아와 일본을 논하고 있지만, 일본이 구미를 대신하여 아시아의 맹주가 되고자 하는 일본의 두 번의 침략전쟁을 용인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텐신의 아시아통합론은 이후 일본맹주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충분히 시사하고 있다.

서구의 무력과 문화적 침략으로부터 아시아의 정체성을 지키려 하였던 명치시대의 한 사상가, 오카쿠라 텐신의 아시아통합론의 주장에는 이미 문화적 통합이 정치적 통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위험성과 대동아공영권으로 나아갈 이론적 기반이 내포되어 있었던 것이다.

주요어: 오카쿠라 텐신, 아시아통합론, 이노우에 테츠지로, 이노우에 엔료, 인도, 명치불교, 아시아, 동양, 미술, 일본, 명치시대, 아시아공동체, 아시아정신, 일본의 자각, 동양의 이상, 대동아공영권, 도쿄미술학교, 일본미술, 국가신도, 폐불훼손, 신불분리령, 정한론

64) 『東洋の理想』 16.

<日文要約>

“アジアは一つ”という有名な命題を通じて,明治および昭和時代にその存在性を刻んだ岡倉天心のこの言葉が大東亜共栄圏のシンボルとして使われることによって,“アジアは一つ”という言葉の意味は “ヨーロッパの栄光はアジアの屈辱”,奴隷とされたアジアの民を象徴するものとなった.大東亜共栄圏で語るアジアの姿は欧米列強の植民地から東アジア,東南アジアを解放し,日本を盟主とする共存共栄の新しい国際秩序を構築することにあったためである.

天心も西洋帝国主義のアジア侵略と掠奪を強く批判しているが,この言葉が登場する『東洋の理想』における一つとなったアジアは同一の精神文化を共有する文化権としての同一性を意味するものであった.

天心は 中国とインドに代表されるアジア文化権のなかには仏教,ヒンズー教,道教と儒教 などいろいろな宗教が存在し,その宗教がさまざまな文化と芸術を生みだし,表面的には異質的にみえるが,結局,普遍的なものに対する愛と宗教的な基盤においては互いにつながっていると強調する.このような同一性は中国と極東アジアに入った仏教がヴェーダと孔子の理想を一つとまとめ,アジアの統一性”をもたらしたからとみなしている.

日本の古代の文化もこのような大陸の影響を受け,日本の芸術,美意識を作り出した.しかし,東洋の優れた古代文明を生出した東洋文明の源であるインドや中国は西洋の侵略で破壊された.これに対し,島国として長い間,外部から孤立され,また,外からの侵略も一度もされたことのない日本はアジアの全文化を保ち,発展させた″アジア文明の博物館″であり,“アジアの思想と文化が預けられた貯蔵庫”であると主張した.そのため,日本には過去の優れたアジア文化を復活させる使命があるのだとも語る.

このような認識は結局,“日本”がアジアの主導権を握ってアジア文明を復興させる主体とならざるえないという主張とつながる.天心は西洋の帝国主義を批判し,美と宗教,平和を愛するアジアを論じているが,日本の侵略戦争を容忍するばかりではなく,積極的に擁護しているという点で天心のアジア統合論は以後,日本盟主論となりうる可能性を伺わせるのである.

西欧の武力と文化的 侵略からアジアのアイデンティティを守ろうとしていた明治時代の思想家であった岡倉天心のアジア統合論はすでに文化的統合が政治的統合となる危険性と大東亜共栄圏とすすむ理論的基盤が含まれていたのである.

主要語岡: 倉天心, アジア統合論, 井上哲次郎, 井上円了, 印度, 明治仏教, アジア, 東洋, 美術, 日本, 明治時代, アジア共同体, アジア精神, 日本の目覚め, 東洋の理想, 大東亜共栄圏, 東京美術学校, 日本美術, 国家神道, 神仏分離, 廃仏棄釈, 征韓論